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무상품(無常品) ①

睡眠靜寤 수면해오
宜歡喜思 의환희사
聽我所說 청아소설
擧起佛言 찬기불언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어
부처님 말씀으로 기록하라

所行非常 소행비상
調興衰法 위흥쇠법
夫生無死 부생무사
此滅為樂 차멸위락

이 세상 모든 일엔 끝이 있어
한번 일어나면 반드시 스러지는 법
태어난 것은 이내 죽음이 이르니
적멸로 즐거움을 삼아라

歸如陶家 비여도가
擬作作器 선치작기
一切要壞 일체요괴
人命亦然 인명역연

마치 저 용기장이가

“만남과 모임엔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엔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

할췌을 깨어 그릇을 빚어내어도
마침내 모두 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러하다

如阿耨多羅三藐三菩提
往而不返 왕이불반
人命如是 인명역시
逝者不還 사자불환

또한 저 강물이 급히 흘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인명도 그와 같아서
한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譬人操杖 비인조장
行牧食牛 행목식우
老死猶如 노사유연
亦喪命去 역양명거

소치는 이가 막대를 쥐고
소를 부려 먹이듯이
늙음과 죽음도 그와 같아서
사람의 목숨을 기르며 물고 간다

千百非 천백비일
族姓男女 족성남녀
貯聚積產 저취제산
無不喪喪 무불쇠상

천이나 백중에 하나도 아니고
성 받아 모든 남자는 누구나
재물을 쌓고 모으지만
스러지고 망하지 않는 것은 없다

生者日夜 생자일야
命自攻削 명자공삭
壽之消盡 수지소진
如榮華水 여영정수

태어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목숨을 스스로 치고 깎으니
수명은 차츰 차츰 닳아 없어진다
마치 용달샘이 졸아드는 것같이

常者皆盡 상자개진
高者亦墮 고자역락
合會有離 합회유이
生者有死 생자유사

오랜 듯해도 다 사라지고
높은 듯해도 다 내려선다
만남과 모임엔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엔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

衆生相隨 중생상국
以喪其命 이상기명
隨行所墮 수행소타

自受災福 자수앙복

중생은 서로서로 으르렁대며
그러다가 재복을 잃기도 하는데
저지른 일따라 떨어질 곳 있으니
스스로 재앙과 복을 부르네

老見苦痛 노견고통
死則惡去 사칙의거
樂家樂家 낙가박육
貪世不斷 탐세부단

늙어서는 고통을 맛보다가
죽으면 고통이 떠나건만
제 집살림 즐기느라 스스로 갈아서
세속 탐하기를 그치지 않네

嗔嗔老至 철철노지
色變作老 색변작노
少時如意 소시여의
老見路籍 노견로적

어느덧 이 몸 늙고 늙어
형색은 변하여 백발이 되며
젊은 날 뜻있게 되던 일도
업신여겨 잊밋하는 꼴이 되네

龍眼

화산스님 (대구 보광원 조실)

나는 통도사 아랫마을 신평이란 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통도사 불교소년회에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이 오셔서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설법도 재미나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부처님일대기도 들었지요. 대 서사시와도 같은 부처님일대기를 듣고난 후 가슴이 몽글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종족이나 나라에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듯이 일체형상이나 유위법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 반드시 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의 인생에 일대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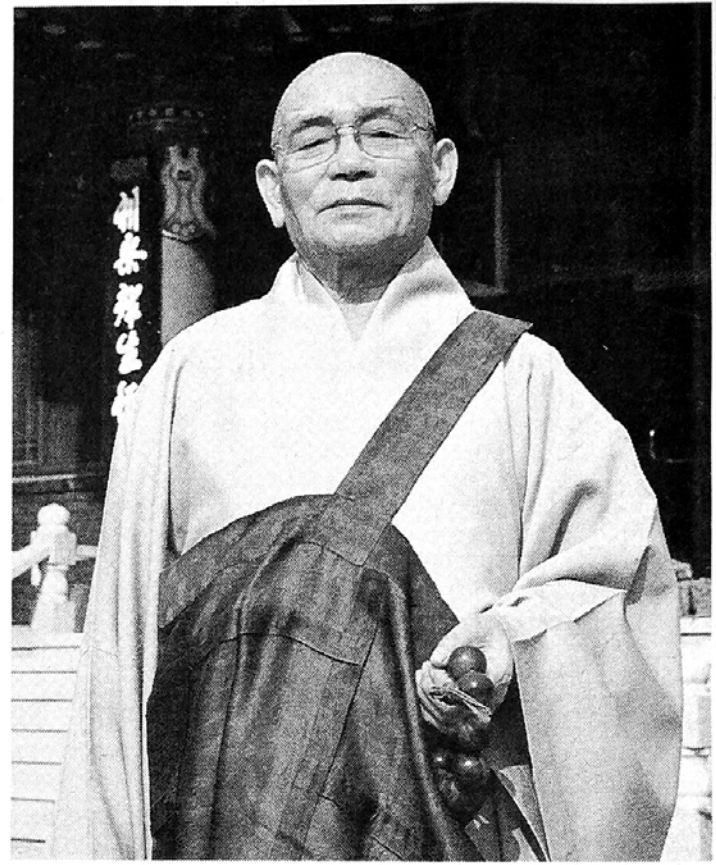
그 당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출세해서 입신양명하는 것을 가장 큰 충효로 알고 있었지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백년도 채 안되는 찰나인생에서 유위법을 따는 것은 마치 유령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국 허망한 꿈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는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통도사 자장암에 계시던 허몽초스님이 사람을 시켜 입산을 권유했습니다. 몽초스님은 당시 큰 인격자로 사중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몇날 며칠을 생각해봐도 생사를 초월하는 길이야말로 나의 이상과 합치되는 길이지라 동지달 21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17세되던 해였지요.

절에 들어가 처음에는 불복하니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생활하다 절에서 불복하니 노릇하러나 제대로 안됐습니다. 김치담그라 장담그라 생소한 일도 많고 서툴다보니 호롱을 당하기 일쑤였지요.

하루는 큰법당에서 재를 지냈는데 국을 모자라게 끓었다고 해서 대중에 앞에서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또 한번은 공양을 빨리 내오지 않는다고 마당에 '개구리 패치듯' 했습니다. 은사스님은 힘도 얼마나 장산치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하여튼 밥 푸고 국 뜨면서 눈을 흘린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스님노릇 안하면 안되네. 다 때려치고 나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장부가 한 번 뜻을 세웠으면 초지일관 결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천만번 수모를 당하더라도 참고 이겨내기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부처 만부처, 천조사 만조사다 그런 과정을 거쳐 도를 이뤘다는 생각이 모든 수모를 견뎌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한 번 꾸지람을 들을 때 한 번 이상이 벗겨지고 한 번 패대기칠 때 한번 업장이 소멸되는,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조기교육이 중요하듯 출가도 초기의 엄격하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는 것이야말로 일생 수행의 밑바탕이 되

- 1919년 경남 양산 생
- 17세때 허몽초스님을 은사로 득도, 방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수지
- 일본 임제선문학교 졸업
-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통도사 강주 역임
- 現 밀양 표충사 조실 양산 천불사 조실

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행자시절에 '하심(下心)'을 닦게 하려고 일부러 은사스님에게 그렇게 모질게 다그치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상과 교만과 우월감 분별심을 소멸하고 하심을 키워야만 뒷날 수행을 잘 할수 있는 것이지요.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고 나서 (사집)을 배웠는데, 치문의 사친장(思親章)을 보면 통산 양개선사가 어머니와 서신왕래한 대목이 나옵니다. 선사는 자신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있던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정을 못이겨 만나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청을 번번히 거절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선사는 어



“만부처 만조사도 고행 견뎌셨습니다
뜻 세웠으면 끝까지 지켜가야지요”

니를 찾아갑니다. 하룻밤 묵게해 달라는 선사의 청에 어머니는 '내 아들도 스님이지만 스님들은 모두 매정하다'는 불경을 늘어놓으며 허락을 합니다. 시력이 약해진 어머니는 아들을 못알아 본답니다. 다음날 세수를 하던 선사는 어머니에게 '보살님, 아들이 스님이야 하니 나한테도 어머니하십시오. 어머니, 내 발종 씻어주소'라고 요청합니다. 어머니는 '아니, 이스님 보소. 다 큰사람이 자기가 씻으면 되지, 누구보고 씻어달라 하노?' 하며 다가가더니 우두둑 우두둑 소리나게 발을 몇번 문질렀습니다. 선사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손이 이렇게 시원하고 좋구나'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직인사를 하고 절에 돌아온 통산선사는 발을 씻어달라던 스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밝히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답장에 '일찍이 인연이 있어 모자간이 되었는데 형은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없었지니 말년에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하는 애절한 내용을 담아 아들에게

보냅니다. 다시 선사는 '금생에 불법을 배워서 내생에는 부처님회상에서 다시 만남이다'는 회신을 합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정히 그렇다면 반드시 목련존자같은 대도인이 되어 무명생사 윤회에 빠진 나를 제도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세족지회'의 고사에서 한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애착과 정이란 게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도의 근본이 다생에 걸쳐 쌓인 탐(貪)·애(愛)·중(情)에 있으니 이때문에 성불을 못하고 윤회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다 문득 본질로 바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초반 수행에 미진함을 느껴 금강산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옛부터 금강산은 큰도인들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거니와 특히 금강산 마하연은 내로라하는 수좌들이 한 번씩은 거쳐갈 정도의 유서깊은 고승선원이었습니다. 출가를 위해 고행집을 동졌듯이 구경각을 위해 나는 다시한번 길을 떠

났습니다. 열월단신 걸망 하나만 달랑 들고 기약없는 길을 나선 것은, 오고 감이 없는 곳에 도달하기 위함이지요, 마음의 고향을 찾지 않음입니다. 양파의 껍질을 한꺼번에 벗기면 아무것도 남지않듯 내 관념의 허상을 하나하나 벗겨서 텅 빈 허허공공(虛虛空空)에 이르고자 했지요.

먼저 서울 선학원으로 갔습니다. 강석주 스님이 원주로 계셨는데 나더러 같이 있자고 하더군요. 얼마있자니 경허스님의 제자로서 선공을 드날리던 승만공스님이 오셔서 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니 '참선은 해서 뭐할래?' 물으시길래,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하려고 합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싱긋이 웃으시며 '그래 한 번 잘해보게' 하셨습니다. 수행이 일천한지라 더 이상 물을 맡은 없었습니다.

선학원에 얼마있자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소요산 자재암에 들렀습니다. 열불방에는 나이드신 노스님 서너분이 계셨는데 열불을 아주 신심나게 했습니다. 열불소리에다 '쿵쿵' 북광쇠소리가 울려서 '올려'를 듣는 듯 했습니다. 신심이 차올라 결망을 털어서 노스님들 대중공양을 해올랐습니다. 빈털털이가 됐는데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전화주문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료번호 7626665 바라밀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시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사찰, 법당의 음향시설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

법당의 필수품

특허품

법당 큰스님 전용으로 특별제작한 세계최고 성능의 마이크입니다.

사용해 본 모든 스님들께서 너무나 만족해 하시는 마이크입니다.

DX-707 스페셜 마이크
●공급가 : 200,000원

DX-707 분리형 스텐드 마이크
●공급가 : 200,000원

TM-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공급가 : 85,000원

『음향연구가 김문화』가 직접 설계 제작한 DX-707 마이크는 현재 법당앰프의 소리를 완전히 바꾸어 드립니다.

취급품목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 행사용 高出力 스피커
- 방생법회, 휴대앰프 전기/배터리 겸용
- 고성능 무선 판-마이크

본사 : 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전화 : (02)697-9976, 605-3235
FAX : 695-9676

유코전자